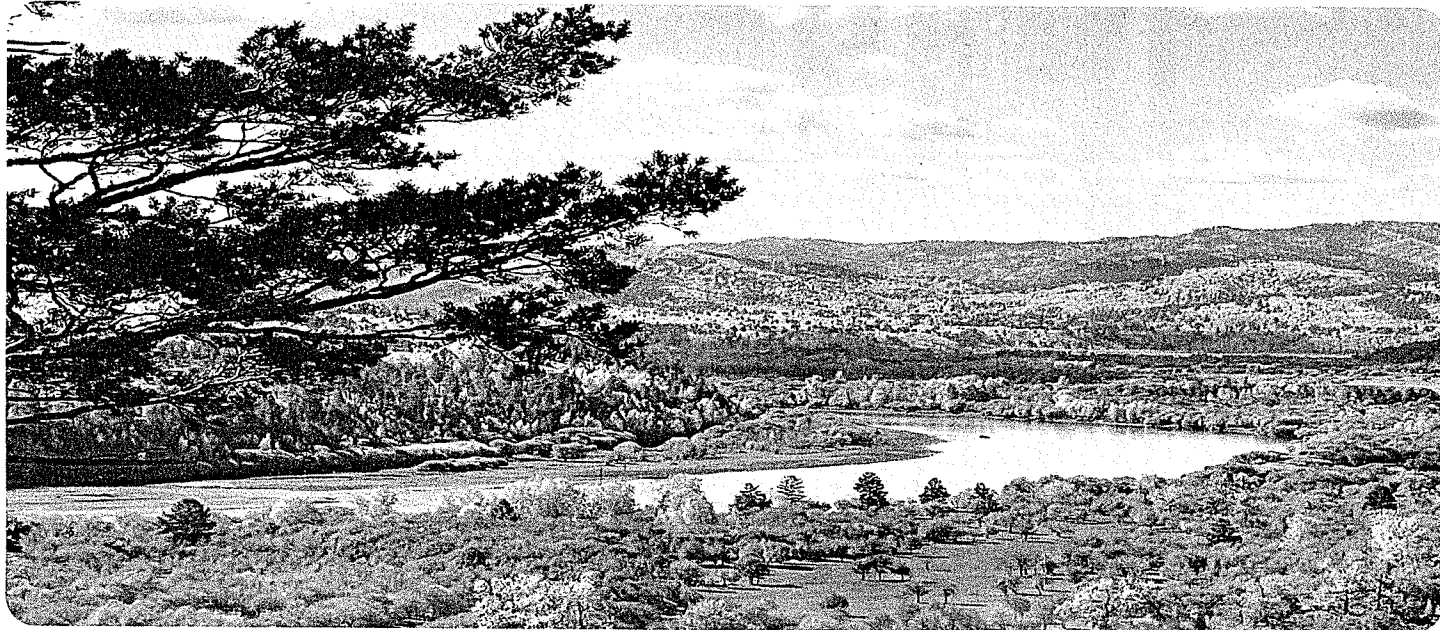


CHRISTIAN FRIENDS OF KOREA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2025년 가을-겨울 뉴스레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므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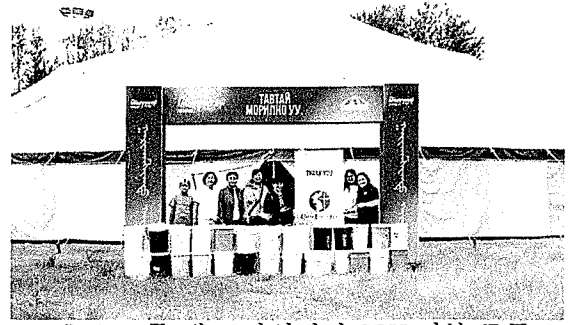
몽골 방문을 통해 협력 파트너십의 기회 확대

CFK는 이사회 구성원 4명을 포함한 총 7명의 팀원과 함께 2025년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몽골을 방문하여, 협력 기관, 기독교 지도자들, 경험 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새로운 잠재적 협력 단체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진행된 여러 회의와 프로젝트 현장 방문을 통해, 우리는 현지의 상황과 필요, 그리고 향후 참여 가능성에 대해 보다 깊고 폭넓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CFK의 몽골 사역은 2024년 봄에 시작된 비교적 초기 단계이지만, 지난해 첫 번째 컨테이너 선적(기존 기증 기관인 Mennonite Central Committee의 동의를 받아 발송)이 현지에서 의미 있는 영향력과 광범위한 도달 효과를 가져왔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어 매우 감사했습니다. 또한 이번 방문 중에는 요청된 물품을 직접 휴대하여 전달하고, 2025년에 Matthew 25 Ministries와의 협력을 통해 발송된 두 번째 컨테이너가 현지에 도착하는 것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큰 기쁨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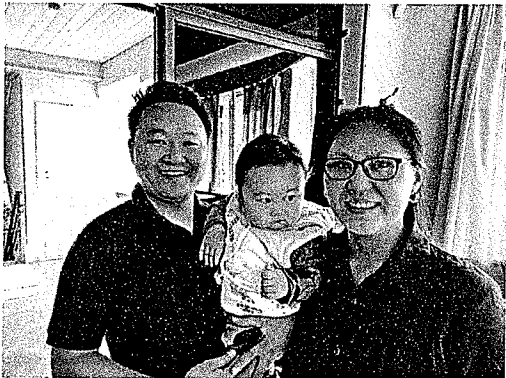
에르테네트 교도소에 의료 물품을 전달하는 CFK 이사회 및 직원들

예수어셈블리교회(Jesus Assembly Church, JAC)는 사막 샘물 네트워크(Desert Springwell Network)라 불리는 45개 교회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통해, 그리고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JAC 산하 NGO인 '홀리스틱 개발 트루리빙(Holistic Development True Living)'을 통해 해당 선적 물품의 현지 배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품 배포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위한 구성원 돌봄(member care)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몽골 안팎에서의 복음 전도 사역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함께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둔드고비(Dundgovi), 2025년에는 호브드(Khovd) 등 두 개 주에서 전도 집회용 텐트 사역을 통해서도 배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병원, 고아원, 재활센터, 교정시설, 중독 회복 프로그램, 그리고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 센터 등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이 수혜처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호브드 주 텐트 사역팀이 CFK 기부 물품 배포 전 함께 있는 모습

몽골 교회는 규모는 작지만 성장하고 있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 통역사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어린 아들

우리는 최근 몽골복음주의연맹(Mongolian Evangelical Alliance)이 몽골 내 교회의 현황에 대해 국가 차원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아직 집계 중이며 올해 말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예비 결과에 따르면 최근의 코로나19 봉쇄 기간과 그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 교회의 성장이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소진과 낙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목회자'라는 직업은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사역과 동시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수의 근로자 월 소득이 400~70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어, 많은 가정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몽골 법률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으나,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이해에 따르면, 법적으로 교회는 종교 활동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 활동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NGO는 종교 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들은 비종교적 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별도의 NGO를 설립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NGO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 중, 물품 배포를 총괄하는 현지 파트너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컨테이너는 몽골에서 우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몽골의 교회들은 중요한 전환기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교회들이 지역사회 사역에 점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지역사회가 교회가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몽골 교회가 국가를 향해 효과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교회가 지역사회로 들어가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지역사회의 필요를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하고자 NGO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물품의 50%는 교회에 전달되어, 비기독교 기관들과 나누며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컨테이너는 새로운 문을 여는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 비상 대응 인력들은 과중한 업무에 비해 보수가 낮은 상황이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과 격려를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 안전 요원, 교사 등 공공 부문 종사자들의 역량과 기술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몽골에는 보건, 위생, 리더십, 인성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필요하며, NGO를 통해 이러한 교육을 보다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이번 방문에는 북한에서 기술 개보수 프로젝트, 태양광·중력식 급수 시스템, 그리고 연구실 구축에 직접 참여해 온 이사회



수질 검사를 논의하는 CFK 팀과 현지 파트너들

구성원인 Rob Robinson, Rick Armstrong, Marcia Kilsby 박사가 동행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몽골의 깨끗한 물과 위생 문제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이었으며, 특히 수질 내 잠재적 오염원, 수자원 확보, 급수 시스템 및 물 공급 과정에서의 문제들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현지 체류 기간 동안 우리는 가정 방문과 지역사회 급수 거점을 방문하였고, 수질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한편, 다양한 논의를 통해 특히 농촌 지역의 물 관련 필요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많은 지역사회가 여전히 심각한 물 및 위생 문제를 안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분야에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몽골 현지 팀들과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수어셈블리교회 네트워크 및 NGO와의 더 큰 협력 기회

에르데네트(인구의 약 60%가 16세 미만인 도시)에 체류하는 동안, 우리는 여러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며 다음과 같은 사역 기회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글 가족 개발 센터: 이글 센터는 예수어셈블리교회 소속 NGO인 '홀리스틱 개발 트루 리빙(Holistic Development True Living)'이 수행하는 중요한

사역 중 하나입니다. 이 센터는 에르데네트 시내 (예수어셈블리교회가 위치한 곳)에서 약 9km 떨어진 매우 빈곤한 지역에 거주하는 위기 아동(6~12세)을 대상으로, 주 2회 사회복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1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센터가 위치한 지역은 광산 개발로 인한 환경 오염, 높은 실업률, 알코올 중독 문제, 한부모 또는 조부모가 양육하는 가정의 비율이 높은 취약 지역입니다. 이글 센터는 가장 취약한 아동 약 40명을 받고 따뜻하며 환영하는 공간으로 초대하여, 영양가 있는 따뜻한 식사 제공, 숙제 지도, 학습 보충 지도, 인성 교육, 위생 교육, 미술 수업, 안전한 또래 교류 시간 등 다양한 지원을 학교 전후 시간에 제공합니다. 현재 센터에는 전임 교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회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자원봉사자들이 이 아동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를 형성하고, 그



따뜻한 점심을 기다리는 이글 센터 아이들

과정에서 장작, 식료품, 일자리 등 가정이 직면한 다른 긴급한 필요를 파악하고 대응하기도 합니다.

이글 센터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정부는 소련 시절에 지어진 노후 건물을 포함한 부지를 조건부로 제공하였습니다. 교회 자원봉사자들의 비전과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Evangelisk Orientmisjon의 기부를 통해 지원된 자재 보조금으로 해당 건물은 전면 개보수되었으며, 현재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변화를 보여주는 영상과, 이 시설이 아동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소개하는 영상이 각각 링크를 (www.cfk.org/eagle)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글 센터는 현재 건물에 2층을 증축하여 공간을 확장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수료한 13~16세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안전함과 지지를 느끼며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증축이 완료되면, 센터는 6~16세의 위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목표: 이글 센터는 새 지붕 설치와 부지 정비를 포함한 건물 2층 증축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자재 및 비품 구입비로 총 90,000달러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도 및 제자훈련을 위한 기회로서 에르데네트 인근 수련회 센터 부지 필요성: 수세기 동안 몽골인의 정체성은 땅, 그리고 자연과 가까이 살아가는 삶과 깊이 연결되어 왔습니다. 시골에서의 야영은 몽골 문화의 중요한 일부이며, 여름철이 되면 가족과 대가족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고 가족을 돌보며 따뜻한 계절을 즐깁니다. 여름은 또한 교회들이 청소년 캠프, 노인 캠프, 아동 캠프, 가족 캠프 등 제자훈련과 전도 활동을 진행해 온 전통적인 시기이기도 합니다. 최근 관광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름철에는 최대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캠프 시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그로 인해 임대 비용이 크게 상승하였고, 최근 몇 년 간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캠프를 진행하는 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어셈블리교회(JAC)는 에르데네트에서 약 12km 떨어진, 완만한 구릉과 목초지, 자작나무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농촌 지역에 위치한 약 7에이커 이상의 토지를 제안받았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이미 다섯 채의 건물이 있으며, 이 중 세 채는 대부분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고 두 채는 보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지에는 이미 시추된 우물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JAC는 이 부지를 매입하여 예수어셈블리교회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다른 교회들도 수련회, 여름 캠프, 훈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CFK가 현지 팀과 협력하여 수련회 센터를 위한 태양광·중력식 급수 시스템을 설치하고, 동시에 농촌 지역의 깨끗한 물과 위생 사역과 관련된 훈련을 진행하며 현지의 지식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목표: 해당 부지의 매입 가격은 50,000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수련회 센터 부지와 건물 전경

에르데네트 교도소 제437호: 예수어셈블리교회의 정기적인 아웃리치 사역 중 하나는 비폭력 수행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에르데네트 교도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 앞서, 해당 교도소는 JAC 산하 NGO에 연락하여 교도소 내 진료소에 필요한 의료 물품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는 요청 목록에 포함된 물품들을 구입한 후, NGO 및 교회 관계자들과 함께 교도소를 방문하여 물품을 전달하고, 교도소 지도부와 면담하며 추가로 파악된 필요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CFK 팀 및 에르데네트 교도소 직원이 기증된 의료 물품과 함께 찍은 모습

교도소는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상태였으며, 수행자들은 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행자들은 직업 기술을 배우고 임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형기 단축의 기회도 얻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도소 진료소를 방문하여 책임 의사와 면담하고, 요청된 의료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현재 교도소 측이 JAC 산하 NGO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개선 사업 중 하나는, 기존의 큰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수행자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조성하고 도서를 비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우리가 교도소를 방문한 이후, 교도소장이 우리 측 연락처를 찾아와 교회 주도의 성경 공부 사역을 재개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교회는 조만간 교도소 내 성경 교육과 사회복지사 대상 훈련 사역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협력 가능성 확대

에르데네트에서 보낸 시간 외에도, 우리는 에르데네트로 이동하는 길과 돌아오는 길 중에 여러 선교사들과 다양한 사역 프로젝트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수도인 울란바토르(UB)에서는 이들에 걸쳐 집중적인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만남은 몽골 교회 및 NGO들과의 지속적인 아웃리치 사역에 있어, 어떻게 협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관점과 맥락, 그리고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공해 주는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처음으로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한 고아원을 방문하여, 겨울용 방한 모자와 비타민을 직접 휴대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이 고아원은 25년 이상 아동 돌봄 사역을 지속해 온 기관으로, 현재 80대에 접어든 네덜란드 출신의 기독교 여성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정부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아동들을 위탁받아 돌보고 있습니다. 현재 울란바토르에서 54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으며, 지방 농촌 지역에는 위탁 가정 형태의 보호 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고아원은 수도의 빈곤한 게르(ger) 지역에 기반한 새로운 주간 돌봄 아웃리치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대부분의 게르가 상하수도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난방을 석탄이나 장작에 의존하는 곳으로, 위기 아동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외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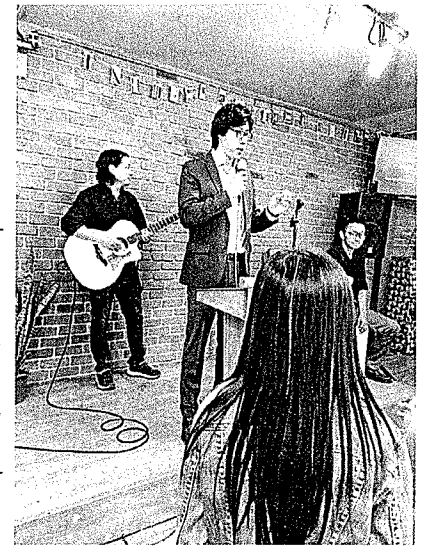
현재 고아원의 원장은 영어에 능통하며 법학 학위를 취득한 인물로, 과거에 그녀의 자매와 청각장애가 있는 오빠와 함께 이 고아원에서 돌봄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삶에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은 다른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분노와 슬픔을 안고 우리에게 오지만, 주님을 알게 되면 사랑으로 변화되고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는 우리의 선물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추가로 요청받았을 때 게르 지역



마르시아 킬스비 박사와 새 겨울 모자를 쓴 고아원 아이들

아웃리치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매월 2,000달러 규모의 식량, 연료(석탄), 의료 및 치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도 우리는 국립 감염병 관리센터(National Center for Communicable Diseases) 관계자들과 다시 만나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2008년에 설립되어 지속가능한 농업, 신앙 기반 개발, 기타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특히 농촌 지역에서 깊은 신뢰를 받아온 몽골 현지 NGO인 FARM의 이사장과 직원들과도 만났습니다. 현재 두 기관 모두와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추가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울란바토르를 기반으로 한 사역에서 협력을 검토 중인 핀란드 기독교 선교 단체 관계자들과도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밖에도 몽골 복음주의연맹, 해기이 인스티튜트(Haggai Institute), 굿뉴스 소사이어티(Good News Society)의 지도자들과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미국에서 훈련받은 몽골인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

여러 만남을 통해 공통적으로 들은 메시지는, 교회의 규모는 아직 작아(최근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인구의 약 1%) 보이지만, 기독교인들이 사회 전반에서 차지하는 선한 영향력은 그 비율에 비해 매우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몽골 교회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를 요청하였으며, 동시에 교회의 새로운 성장 목표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1+1|28' 이니셔티브로, 2028년까지 한 명의 지도자가 또 한 명의 지도자를 세우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전도하며, 한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 울란바토르의 한 지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 예배에는 수줍지만 매우 친절 한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학교에서 배운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기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몽골이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진리와 소망을 선포하며 몽골 안팎의 많은 어두운 곳에 생명과 치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 경험 많은 교회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몽골을 돕는 것은 단지 몽골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몽골 사람들이 세계를 향한 큰 마음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Matthew 25 Ministries와의 협력으로 도착한 2025년 컨테이너를 개봉하는 JAC 관계자들과 CFK 팀의 모습

우리는 몽골 사역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며, 재정적·정서적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많은 후원자들과 동역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사역의 초기 단계에 있지만, 신중한 파트너십과 기도, 격려, 지원을 통해 이미 좋은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몽골의 기독교인들은 많은 희생과 창의적인 헌신으로 몽골 안에서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중국, 러시아,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는 북한을 비롯한 여러 지역을 향한 선교 사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열정과 깊은 헌신을 가진 많은 신실한 신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기도하며 사역의 지경을 넓혀 가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입니다.

북한 소식 업데이트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이후 북한의 대외 재개방은 현재까지 주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중국과의 교류가 제한적으로 재개되는 등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PUST(평양 과학기술대학교)는 미국이나 남한 국적이 아닌 상주 교수진을 중심으로 학생 교육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한국계 주민들은 나선(Rason) 지역으로 돌아가 현지 프로젝트를 재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UNICEF)가 예방접종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중 평양에 방문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북한은 최근 평양에 대형 병원을 개원하였고, 원산 인근에도 또 하나의 병원을 새로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보건 및 농업 분야를 포함한 주요 양자 협력 사업에서 북한 정부를 지원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향후 추가적인 개방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 당국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